

기사입력 2013.06.04 13:45:20

충남도가 일본의 부품소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 3곳으로부터 총 4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일본을 방문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아이산인더스트리, 아드반테스트, 무로후시제작소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필터.펌프 제조업체인 아이산인더스트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천안 백석농공단지에 3500만 달러를 투입해 6100㎡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제품 양산은 2015년 초 들어간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아드반테스트는 메모리 핸들러, 시스템온칩(SoC) 핸들러, 장치 인터페이스 및 검사카드 등의 신제품을 연구하는 연구개발(R&D)센터를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설립한다. 이 센터는 660㎡ 규모로 다음 달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7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앞으로 40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채용될 전망이다.아드반테스트는 지난달 16일에도 천안3산업 단지에 신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무로후시제작소는 코리아신예와 합작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830만 달러를 투자해 9900㎡ 규모의 리테이너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내포 = 조한필 기자]